창조도시 부산,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마리아쥬(marriage)
- 부산비엔날레의 역할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손 경 년

상지대학교 초빙교수

1. 들어가는 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망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곳, 도시는 발전과 성장에 대한 지치지 않는 요구를 받는 곳이다. 도시는 존재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곳이라 여겨지면서도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그 무엇' 때문에 새로운 욕망을 담은 구호들을 자꾸 끌어내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시는 진기함과 과장된 행사나 건축물, 전시회, 축제 등으로 무장하여 쉴 새 없이 쏟아내야만 안심한다. 이러한 욕망은 그램 질로크(Gream Gilloch)의 '지속적인 진보에 대한 끝없는 개선은 자본주의의 속임수이며 도시는 비판적 사유가 아닌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유발하는 허위의식과 현대 신화의 고향'[1]이라는 진단과 유착된 듯 보인다.

도시는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웅동체처럼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문명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류의 성취와 실패를 담고 있는 인공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테크놀로지와 손잡은 건축물이 바벨탑을 꿈꾸면서 높이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고 도로의 확장으로 자연에의 외포소멸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도시는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파고들면서 '진화'의 새로운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듯 도시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시간의 질주'에 몸을 맡기고 번듯하다고 여겨지는 도시풍경 뒤의 궁색한 삶의 모습에 대해 그저 짜증만 내고 있는 것 보다는 '숨겨진 기만'과 '왜곡된 인식'을 낱낱이 드러내어 명징한 비판을 통한 '구원'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도시를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이나 도시행정가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를 혐오하면서도 사랑한다. 도시성장과 20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도시폐허를 거쳐 이제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현대도시는 어떠해야 한다'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도시', 혹은 '창조도시'에 대한 세계도시들의 움직임에 대해 애써 모른 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도시비전은 새로운 문명의 구도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주기적으로 고개

1)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효형출판, 2005

를 드는 경제침체에 대한 필연적인 과정의 하나이기에 우리는 적절한 해답을 어쨌거나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부산비엔날레 10년, 그 전환점에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부산비엔날레 2009년도 학술심포지움과 관련하여 1) 예술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비엔날레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인가? 2) 부산시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글머리를 잡고 싶다. 이 질문은 2007년도 학술심포지엄(What's Up, Biennale?) 워크샵에서도 집요하게 다뤄진 '비엔날레,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이슈였으며 여기서는 연수만큼 좀 더 진전된 것을 찾고자 한다.[2] 또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언제나 제법 큰 프로그램이 어떤 지역에서든 시작, 가동, 운영될 때에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는지(why, what for), 누구를 위해서(for whom)인가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터라 늘 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론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예술인(창작자/생산자)'과 '부산시(정책결정자/행정가)'라는 이인(二人)이 지난 10년을 토양삼아 앞으로 10년, 100년이라는 골인지점을 향해 현명하고 효율적인 삼각(三角) 달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짚고자 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평가보고서를 보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산비엔날레의 지난 10년을 평가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며 오히려 부산비엔날레의 역할과 가능성이 부산시 발전이라는 좌표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창조도시 부산'의 도약이 가능한지를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창조도시(Creative City)

○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먼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이미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문화발전 전략으로서의 '창조도시'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7~80년대를 거쳐 90년대 후반의 세계 금융경제 위기와 최근 신자유주의의 휘청거림에 따라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보는 창의성(creativity)은 도시문화정책의 주요한 핵심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 적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각국 - 특히 유럽의 경우가 그러한데 - 의 대응은 재정삭감과 분권화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예술 및 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성과 재정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했다. 다른 한편 제조업의 쇠퇴와 도심공동화로 인한 문제의 대처방식의 하나로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문화정책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도시 활성화 정책이 문화산업 인큐베이션 기능과 문화시설 집객력을 통한 '문화소비 확대' 및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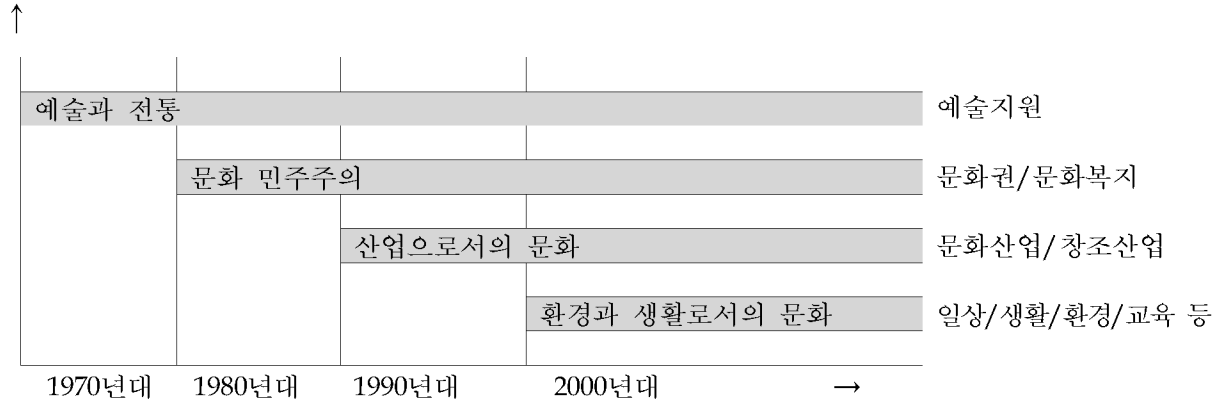
2) 당시 토론자로 참여했던 페트리샤 엘리스는 질적수준, 국제적 역량강화, 기금확보, 비엔날레 운영구조 재고,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활동 개발 및 공간 할당, 혁신적인 홍보 등의 제안을 했으며, 김규원은 지역발전 즉 지역의 경제발전과의 연계, 지역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 등을 제안, 정진윤은 조직의 전문화, 예산의 안정적 확보,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 등을, 아크 퐁스무트는 아시아-태평양 비엔날레 네트워크를 위한 거점 가능성을 위한 스터디 그룹의 결성, 현장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What's Up, Biennale?-2007년도 학술심포지엄』, 주최, 부산광역시,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주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학술위원회, 2007, pp. 156-169.

창의력이라는 것이 경제적 효과와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산업과의 긍정적인 접합지점을 찾음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문화정책의 주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과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는 이는 도시재생에 의한 고용창출이 저임금, 파트타임, 미숙련 노동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마다 대규모 하드웨어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도시마케팅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행사의 양적팽창과 이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의 일시적 효과가 있긴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공간운영을 위한 비용 상승이 생김으로 인해 '빈 공간 전시관 혹은 음악당'이 생겨나고 후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경우를 보면 문화정책 연구자들이나 행정가들은 복지, 의료, 교육 등 기타 공공정책분야와 연계를 맺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문화자원'의 가치를 도시재생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문화정책의 관심사가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실험적인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자원배분', '사람들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이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표 1 : 시대별로 살펴 본 문화관심 영역의 변화>



출처 : <해외 문화도시 및 기관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국제교류협력 모델 개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연구소, 문화관광부, 2007, p. 16

○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시작과 개념의 전개

가치의 경제학을 주장하던 존 러스킨(John Ruskin)은 '가치 있는 것'으로 1) 토지 2) 주거와 장식물 또는 건축물, 생산용구 3) 식량, 의료품, 사치품 4) 책 5) 예술작품을 들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의 상식적 재화분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책과 예술작품은 '한편으로 사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힘,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력이 넘치고 고결한 감동을 주고 지적 활동을 높이는 힘을 갖는다'[3]고 말한다. 러스킨(Ruskin)의 관점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경제학적 관점과 달리 '인간의 창의적 활동과 인식에 기초하여 예술

3) 『경제학 - 돈의 경제학으로부터 인간의 경제학으로 』, 이케가미 준, 임상오 옮김, 문창사, 1995, pp.184-185;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경제학 최대의 변수는 '애정'이다』, 존 러스킨, 김석희 옮김, 느린걸음, 2007

작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있는 상품은 기능과 예술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의 삶을 개선하고 인성을 배양한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러스킨(Ruskin)의 사상을 이어받은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산업사회의 노동 소외, 대량생산과 소비구조를 비판하면서 '예술가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 제작되는 공예품(Craft)의 생산 개념'을 재주장하면서 '노동의 인간화'와 '일상의 예술화'를 목표로 하는 '미술공예운동'을 일으킨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4)]

러스킨(Ruskin)과 모리스(Morris)의 사상은 도시연구자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에게 이어졌는데 그는 '인간의 소비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한 도시 재구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유산이 집중되어 있고, 끊임없는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활동의 고차원적인 잠재력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5)] 다시 말해 그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잠재력(=창의력)을 도시가 얼마만큼 가능하게 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문화도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시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창조도시'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학자로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J. 제이콥스(J. Jacobs)를 꼽는데 이견이 없는데 그녀는 '산업적 혁신과 변화에 능한 도시'를 창조도시라 규정하였다.[6)] 이후 보다 활발하게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가 세계의 도시 및 지자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비안치니(F. Bianchini)와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의 '도시 간 비교연구'가 구체화되면서 부터이다.[7)] 70년대의 영국은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무너지면서 복지 분야의 대폭적인 삭감 및 빠른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탄광지역이나 제조업 중심지는 노동자의 이탈로 인해 공동화가 극심해졌으며 슬럼화로 인한 범죄율도 상승하고 있었다. 신도시의 건설이 갖는 함정과 함께 재정적 압박이 컸던 영국과 유럽의 도시들은 닥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 활동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시민의 창의적 활동의 참여와 창의적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도시가 혁신산업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고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도시의 혁신과 경제적 성장을 항시 고민해야 하는 도시정책가나 행정가들의 '도시재생과 창의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랜드리(Landry)에 의하면, 1980년대 말 유럽의 도시들이 '좋은 도시 건설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며, '미래의 달성 가능한 도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 중에서

4) "네트워킹을 통한 창조도시 개발", 사사키 마사유키, <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 대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간 연대>, 문화관광부, 2008.5.16, pp.91-92

5) Mumford, Lewis, *The city in history :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1, http://blog.naver.com/cityplanner7/40001789944 에서 재인용.

6)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임상오 외, 해냄, 2007, pp.12-21, 제이콥스는 창의성을 '환상과 상상 그 이상의 것이며, 지능과 혁신 중간에 위치'한 개념으로, 즉 '예술/문화와 산업/기술 간 중재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7)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Bianchini, F. and Parkinson, M.(ed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1993 ; 『the Creative City-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andry. C. Comedia, 2000; 『the Art of City Making』, Landry, C. EARTHSCAN, 2006

창조도시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특히 1985년 유럽각료회의에서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Culture)' 프로그램이 발족된 이래 유럽의 도시들은 '효과적인 문화계획 전략'을 마련, 경제개발과 문화정책이 함께 발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즉 투자정책의 활성화, 도시마케팅 기법의 활용, 도시이미지 강화를 통한 도심재생 등과 함께 추진하면서 이미 유효 만기된 제조업 기반경제에서 보다 혁신적인 문화중심경제로의 재편을 시도하였다.[8)]

특히 '창조성(Creativity)'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상승했던 것은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역할이 컸다. 그는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갖춘 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도시들의 공통점으로 1) 그 도시만의 진정성(개성)을 갖고 있고 2) 게이처럼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 조차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tolerance)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플로리다(Florida)는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 도시만의 진정성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관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창조도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9)]

<표 2 : 창조도시 개념>

구 분	창조도시 개념
J. 제이콥스	"포스트 포디즘 시대를 맞이하여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인 자기조절 능력에 기반을 둔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C. 랜드리	"예술을 통한 사회적 잠재능력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 "창조성이란 새로운 발명의 연속일 뿐 아니라 과거와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 수행되며, 문화와 창조성은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도시의 고유한 창조환경(creative milieu)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
사사키 마사유키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한 동시에,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부분적인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창조의 장(場)'이 풍부한 도시"
리처드 플로리다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갖춘 도시로 도시만의 개성이 있고, 게이 등도 포용하는 관용성,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 도시"
임 상 오	"창조도시란,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재화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학습하는 도시"

출처 :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임상오 외, 해냄, 2007
<2008문화도시국제컨퍼런스-대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간 연대>, 문화관광부, 2008. 5. 16 참조, 재구성

8) "Remaking European Cities : The Role of Cultural Policies" in Bianchini, F. and Parkinson, M. (eds.)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1993; 『In from the Margin -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Europe』, 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1997

9)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ichard Florida, Basic Books, 2002

<표 3 : 창조도시 조건의 범주 비교>

랜드리 (1994)	에베르트 등 (1994)	사사키 마사유키 (2001)	리처드 플로리다 (2002)
· 개인의 자질 · 의지와 리더십 · 다양한 인간(재능)에의 접근성 · 조직문화 · 강력한 지역정체성 · 도시의 공간 및 시설 · 네트워킹 및 연대구조	· 하드웨어 (공공 및 민간 연구 개발 활동, 다양한 예술 및 문화 활동, 다양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활동 등이 제공되는 시스템) · 소프트웨어 (도시의 전통,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도시 이미지,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정체성 등) · 위기 · 의사결정자의 개방성 (개방적인 사회 및 정치 환경의 조성) · 상호자극 (도시 내의 창조적인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마련) · 창조적인 공간 (도시의 관계자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면서도 재정적으로 견딜만한 수준의 장) · 협조능력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협조능력) · 학습시간 (위의 7가지 요소들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요인들을 학습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인식)	· 유연한 지역경제 시스템 · 창조지원 인프라 · 생산과 소비간 균형발전 · 아름다운 경관 · 주민참가 시스템 · 재정자주권	· 두터운 노동시장 · 생활양식 · 사회적 상호작용 · 다양성 · 진정성 · 정체성
· 편견 없이 열린 마음 ·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전략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기목표에 대한 명확한 관심 · 지역의 고유성을 활용하는 능력 · 외견상의 약점 속에서도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학습하고자 하는 기질	· 창조성이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 (intelligence와 혁신의 중간) · 정보수집-부화과정-문제해결 과정의 시행착오-좌절(실패)-휴식-영감-평가 · 사람(자발성, 호기심, 독립성, 다양성 등)과 그룹(위험을 감내할 준비 등), 환경(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다양성, 교육시스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사회적 안전 등), 창조적인 테크닉(브레인스토밍 등)		· 3T 전략 - Technology - Talent - Tolerance

출처 :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임상오 외, 해냄, 2007,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ichard Florida, Basic Books, 2002 등 참조 재구성.

3. 창조도시 사례

○ 유럽의 경우

구분	도시명	창조도시로서의 특징	효 과	문제점
유럽 문화 수도 10)	글래스고 우 리버풀 로테르담 포르토 제노아	· 문화를 중심축으로 삼음 · 포괄적인 도시구조 재편 계획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문화산업과 창조적 산업개발 중심 계획을 기반으로 대폭적인 도시개혁 단행 · 단순한 마케팅 관점에서 도시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문화계획 관점으로의 전환 · 신규 프로젝트의 위임, 현지 예술가나 국제적 예술가를 위한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문화생산의 창의성과 혁신 촉진 · 해당지역에 뿌리 내린 비공식적 문화 활동을 통해 공식적인 문화 활동의 지원 → '창의성 pp육성전략'은 지역 경쟁력 관리보다는 문화생산에 주로 집중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율적인 활동 가능	· 도심재생 프로젝트 내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한 도시의 경우 1) 새로운 건물과 지역개발 2) 과정에서 창조적 일자리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개발 추진 가능 · 도시와 주변지역의 국제적 위상 재정립을 통해 향후 관광객을 늘리고 문화적 자원에 대한 관심 고조 ·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정체성 이해 및 문화정체성 공유 · 현지 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경쟁력 향상 · 도시의 문화프로그램 담당자들 간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결성11)	· 유럽문화도시 지정만료 후 운영기관 관리와 재원조달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
	릴	· 도시자체의 철학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 · 유라릴메트로폴(Euralille-Metropole)이라는 민관합자 개발회사를 설립, 8명의 건축가를 초대, 총괄 책임건축가로 네덜란드 건축가 램 콜하스 선정, 구체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요구 · 포괄적 지역권 형성 및 전 17,000여명의 주민이 홍보대사를 하는 등 행사 참여 유도 방식 강화 · '암울하고 권태로운 지역'이라는 인식을 쇄신하기 위해 '변태(morhposis)'를 도시버전으로 삼고 대중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이 우선순위 부여	· 도시 곳곳의 지속적인 문화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릴 시에 대한 이미지 전환 · 도시의 기존 공공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데 성공(메종 드 폴리) · 인접 지역권의 유대관계 강화 ·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이끌어 냄	·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안이 계속되어야 함 · 안정된 예산 확보의 문제 및 조직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

10) "유럽문화도시(수도)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1985-2008)", 로베르토 그란디,<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문화관광부, 2008, pp.59-74 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1) 2006년 12월, 18개 국가 40개 회원으로 구성된 유럽문화수도 대학네트워크(University Network of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 UNeECC)가 결성, 이는 도시 및 대학 간 협업을 촉진하며 '시민과 대학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면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보고 있으나 아직 효용성의 평가 단계는 아님

구분	도시명	창조도시로서의 특징	효 과	문제점
기타	베를린 12)	· 바깥으로의 팽창이 아닌 내부 개발 우선 · 도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토지사용의 균형적인 혼합 · 실험적인 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 '과거의 존중'과 '도시기능'에 초점을 둔 주요거점 활용 · 역사적으로 성장한 다극 구심점의 보호 · 문화적 역동성을 중심으로 문화 활동가의 활용	· 예술의 장으로서의 베를린 인식 전환 · 대규모 문화공간 건설 없이 국내·외 유명 문화 활동가들이 모여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생산	·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문제

이상의 유럽의 사례를 통해 얻게 되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유럽의 문화상품' 유통을 통한 유럽의 문화정체성 확립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diversity)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재원조달과 전문적 운영조직을 갖춘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이 요구된다.

▷ 선거결과 등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지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

▷ 무엇보다도 현지 기관, 조직, 협회 등의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

○ 일본과 홍콩의 경우13)

도시명	창조도시로서의 특징	효 과	문제점
요코하마	· 시민의 힘과 창조력 · 교류거점, 활력문화예술, 쾌적함, 환경실천, 치안복지 등을 도시의 기본방침으로 설정 · 도심부 활성을 위한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선택 · 예술가의 활동 공간 확대 ·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관련 산업 유치 · 기존 문화예술자원의 활용 - 미술관, 화랑, 홀 등 기존시설 네트워크화 도모 - 트리엔날레, 영화제 등 문화적 이벤트를 도심부 전체에서 전개 · BankART1929 : 1929년에 은행건물로 지어진 구 제일은행과 구 후지은행 건물을 예술문화공간으로 이용 · BankART Achool : 2004년 개교 · Creative City Center : 요코하마 도심 역사적 건축물 활용실험 사업	· 문화예술을 선택함으로써 1) 문화예술이 요코하마의 독자적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능 2) 시민과 기업이 도시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므로 도시활동이 활발 3) 요코하마 도심부의 역사적, 문화적 토양을 살리는 것이 가능	· '미나토미라이' 수변도심개발 프로젝트 좌절 이후 현 시장이 프로젝트 실패를 비판, 새로운 전략을 제안 한 것으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시민단체 및 예술가의 지향점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는데 어려움

12) 「세계의 도시 : 베를린」, 올리비에 쁘띠, 광주 시민문화회의 <가디언 과정> 강의노트 중, 2007

13)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연구>, 성남문화재단, 2006; "네트워킹을 통한 창조도시 개발", 사사키 마사유키, "서구룡문화지구 문화허브 개발", 빈센트 펑, <2008 문화도시 국제컨퍼런스>, 문화관광부, 2008 내용을 재구성.

도시명	창조도시로서의 특징	효 과	문제점
가나자와	· 1992년 가나자와 시 의회에서 <경관도시 선언>결의 ·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따른 활동 연계 ·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강화 -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유관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 관련 인재 육성, 전통산업의 이론적 연구 및 실험 - '지속적인' 도시경관 간담회 실시 · 도시경관간담회를 확대한 '도시경관심의회' 설치·운영 · 공공홀 운영재단 설립에 의한 공연예술진흥 · 1996년 9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창고와 섬유공장을 활용, 시민주체의 개방형 공간인 시민예술센터 운영 - 드라마 팩토리/뮤직 팩토리/아트 팩토리/ 에코 팩토리 · 우타쯔마야 공예공방 운영 ·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비전으로 한 비행접시를 닮은 '21세기 미술관' 2004년 개관 - '미술관 크루즈'> 프로그램 : 가나자와 시내 모든 초중고생을 미술관에 초청	· 기존시설의 활용 및 시설이용의 활성화 · 재계와 일반시민들이 가나자와 창조도시 협의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창조도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 "예술이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미래를 위해 창의성이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 (유타카 마노 전 미술관장) · 미술관과 연계해 새로운 패션 및 디지털 컨텐츠 산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패션 산업개발 부서 신설	
홍콩 (계 획 수립중)	· 홍콩의 미래를 위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투자 : 표현의 다양성, 창의성,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 화합에 대한 투자 · 핵심문화예술시설(WestKowonCulturalDistrict)은 홍콩의 문화산업 및 창조적 산업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동력	· 모든 문화예술 시설을 적절히 클러스트화 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상업시설과 연계해 유동인구와 관광객 유치	· 공급자 중심의 프로젝트로 시설 투자의 비중이 높음

이상의 일본과 홍콩의 사례를 통해 얻게 되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양적, 물리적 측면이 강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들과 달리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면서 개혁적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비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제도정비 및 지원체계를, 시민들은 자발적 참여 및 조직운영 등을 통해 민관의 협업이 가능한 조직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홍콩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의 시설개발 및 운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민간분야는 대부분 D&B(Design & Build)계약이나 O&M(Operation and Management) 계약을 통해 조달과정에 참여하게 함. 재원부족에 대한 해소 방안을 위해 WKCD 재원 조달 방식의 제안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있다.

▷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의 개선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예술 감상 및 예술적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 상품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이다.

▷ 예술관련 건물 등 하드웨어와 문화예술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인적자원의 강화 등의 동시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술계와의 협력이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내의 경우

도시명	창조도시의 요건	효 과	문제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	· 문화를 도시발전의 중심개념으로 끌어올림 · 아시아를 동반자로 하며, 아시아 문화 양식과 집적을 위한 도시거점의 재편 · 아시아 평화예술도시, 아시아 문화교류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 조성의 정책목표 · 아시아문화전당의 원칙으로 교류, 창조, 연구, 교육의 순환, 연계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 문화지구 및 중·소 거점(문화방) 간의 순환적 연계 · 문화도시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확충 · 시민참여, 시민주체 프로그램 가동 및 제도 확립	· '문화도시' 개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전국 확산 · 몇 개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의 연계 및 인력양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발적 역량 확대	·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받을 경우, 본래의 취지를 손상할 수 있음 · 탑다운 방식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해소가 요구
통영	· 도시의 문화자원 발굴 및 도시 마케팅 · 윤이상, 김춘수, 박경리 등 인적문화자원과 프로그램의 결합 · 민관의 힘을 모아 재단 설립. 예를 들어 통영국제음악제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적극 유입을 통한 사무국 운영체제 구성 ·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축제	· 도시규모에 맞는 국제축제의 성공에 따라 접근성 확충 및 인접지역의 동시 성장 유도 ·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 증대 · 지역 내의 문화인적 역량의 학습효과 증대	·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의지 · 외부 관광객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환경생태 문제
순천	· '문화도시=평생학습을 통해 배우는 도시' 명제로 회계의 5% 이상을 교육에 집중 투자 · 주민, 특히 고령자의 문화활동 참여유도 및 지원 강화 · 시청의 담장을 허무는 등의 행정이 시민에게 다가가기 · 활발한 민간 자원봉사단체 · 4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발적 시정 자문단 활동	· 72개의 학교를 보유, 인구 30%가 학생으로 최대의 교육적 자산이 풍부한 도시 · 일상생활중심의 문화활동 강화함에 따라 지역정체성 강화	

국내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창조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역 내에서의 핵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 활동가들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경영의 방식 요구

▷ 지역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독창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 프로그램

▷ 국제적 예술가들이나 예술경영자, 기획자, 공간 소유자에게 어떻게 매력을 줄 것인가

▷ 문화의 장을 개발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의 모색과 세계의 문화시장과의 연결점 찾기

4. 맹아 : 부산비엔날레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본 창조도시 부산의 가능성

대개의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비전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 도시발전이란 곧 '경제'성장을 말하는 것이며, '문화도시'나 '창조도시' 등을 지향하는 것 또한 '문화'와 '창의성'이 21세기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문화프로그램의 가동이라고 여기는 탓도 있다. 그렇다면 부산시 또한 이와 다름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두(冒頭)에서 질문한 것처럼 '부산시는 무엇을 얻기 위해 부산비엔날레를 지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문화가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등의 유혹적인 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창조도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이 용어가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상상력을 낳게 함으로써 기실 명확하게 규정할 만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문화나 창의성에 대한 표준규범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상적인 판단과 그에 근거한 평가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유럽의 예를 보면 '도시의 인프라가 얼마나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얼마나 특징적인 도시색깔을 띠고 있는가' 등이 문화도시로서의 기준이 되고, '시민의 일상의 삶과 도시의 공간이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이벤트를 많이 벌이는 도시, 혹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규모만 크게 만들어놓은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가 '문화도시'이자 '잘 사는 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벤트를 통해서 도시지명도 확보가 목적이라면 굳이 창조도시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진정한 '창조도시'는 문화적 양식과 그것이 집약된 도시의 질(quality)이라는 측면, 다시 말해 의료, 복지, 교육, 쾌적함 그리고 '삶다운 삶의 기획' 등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재고하는 가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작동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꾼다면 그래서 미래비전으로 '창조도시'를 추구한다면 도시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대개의 도시에서 보이는 '근대의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난개발, 환경파괴 또는 무질서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에 의해 야기된 삶의 질 저하 및 지나친 물신화 현상'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서 부산시는 기존의 도시성장이 가져다 준 병폐를 치유하고 문제에 정면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의무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경쟁력 강화와 타 도시 간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미 창조도시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단순히 제조업 위주의 공장건립이나 건설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등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여타 지역에 비해 영상·미술 관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언급했듯이 21세기형 도시는 산업 하나만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그동안 근대화를 위해 40여 년 동안 우리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놓쳤고 결국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성의 원천지인 예술과 새로운 산업과의 결합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되었다. 여전히 문화예술은 일종의 장식적, 디자인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래서 불황기가 닥쳐오면 문화예술 지원금의 삭감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는 문화예술의 속성이 삶의 내적 동력이며 창의력의 자극점이라는 사실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 본다. 창조도시로의 성공여부는 그곳에 '창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들이 도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곧 도시 활성화의 요체가 되고 있다는 다양한 사례들을 참조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곧 도시의 미래지향점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들어선 것과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부산시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기약한다면, 혹은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이는 서울과 서울근교 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걸린 문제이다), 도시쇠락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적 지형을 잘못 읽어서 혁신의 시점을 놓쳐 쇠퇴한 도시들을 숱하게 보아온 우리는 이렇게 선행학습을 통해서 여타 도시가 저지른 우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하나의 사례로 '바이엘'과 독일 레버쿠젠시를 들 수 있다.[14] 바이엘은 회사의 발전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연결지었다. 바이엘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문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 부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까지 맡아 하고 있다.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진행되는 문화행사 기간 중에 바이엘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회, 연극, 무용 등 문화프로그램을 100여회나 제공하면서 레버쿠젠 지역은 스포츠와 문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만약 '바이엘이 이윤추구에만 목표로 했다면 지금의 바이엘이 없을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바이엘은 장수기업으로서의 보증서를 확보한 셈이 된 것이다. 기업의 흥망성쇠 또한 혁신과 창의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이라면 도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부산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환경을 살펴보면 그 어떤 도시들보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운명을 타고 났으며, 동북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곳에 자리함으로써 '개방성'과 더불어 세계시장과의 결절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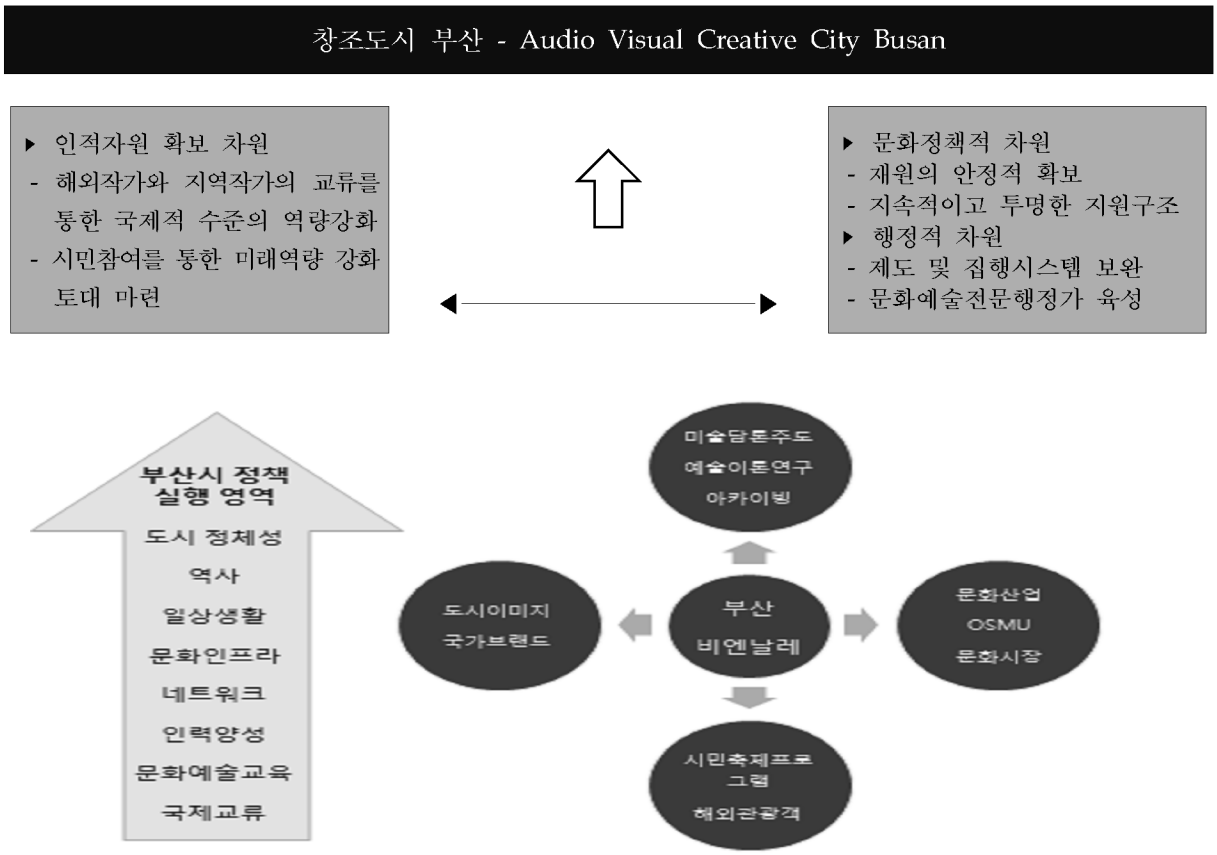
'문화예술은 더 이상 지역개발의 한 분야가 아니라, 지역개발 전체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인 것이며,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문화가 가치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자원'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부산비엔날레 10년'은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특성상 10년 이상을 지원하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장한 부산비엔날레가 부산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근간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도시마

14) 『창조적 자본주의』, 최혁준, 도서출판 이안에, 2008

케팅은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 외적목표, 즉 '신규경제활동' 및 '생산 활동 유치', '신규 관광객 유입 확대',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 강화' 뿐만 아니라 내적 목표 즉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지자체와의 신뢰 공고' 등이 가능하며 '지역의 생산 활동 지원'과 '지역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지속적으로 부산비엔날레 학술심포지움에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반복적 제안을 함으로써 실행을 촉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1) 부산비엔날레의 역할이 <창조도시 부산> 조성에 미치는 역할



2)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한 부산비엔날레의 전략적 지향점

○ '전문가를 위한' 비엔날레와 '일반인을 위한' 비엔날레로서의 이중적 문화전략

비엔날레는 '자국의 미술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미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엔날레 간의 치열한 경쟁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비엔날레에서 제기되는 '지역성'과 '세계성'의 충돌은 부산비엔날레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규정해야 하는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적 관점은 비엔날레란 '자국 미술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획득'이라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산시 정책적 선택은 '이 두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비엔날레가 '전문가를 위한' 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안정적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전문가(예술가)를 위한 전략
- 우리나라 미술문화 인프라의 재구축
- 글로벌 스탠다드의 획득
- 정보와 담론의 생산과 교환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적 효과를 얻어냄으로써 자국의 미술문화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

▷ 일반인을 위한 전략
- 핵심 전시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행사가 진행되는 축제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며, 체험과 참여방식을 다양화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최되는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의 상승효과

▷ 국제교류의 플랫폼
-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워크숍 및 토론프로그램, 캠프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한 잠재역량(잠재소비자)의 국제교류

○ 부산비엔날레 조직의 전문성 확보 전략

문화예술조직에서의 '경영마인드 도입'이란 경영이 우위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예술조직의 특성에 맞게 경영적 기법을 도입'한다는 의미이다. 부산비엔날레의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늘 언급하듯이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양성에 대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문성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전시역량 및 세계 미술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전문성
▷ 재원확보 및 집행의 전문성
▷ 조직 관리의 전문성
▷ 국제적 감각의 홍보마케팅 전문성
▷ 지역과 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전문성
▷ 독자적 담론형성 및 생산이 가능한 전문성
▷ 지역미술 인프라 및 국제 네트워크 전문성 등

이러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고 구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개방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지역성 기반의 국제축제로서의 도약전략

일단 국제축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금조성 및 후원', '공적재단 수립', '연구와 조사', '아카이빙' 등에 대한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 성격을 가진 축제가 국가브랜드 상승

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 또한 전략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중앙정부, 비엔날레 주체들 간의 정책적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와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 방법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외부자의 영입·활용전략

우선 내부의 운영주체들의 글로벌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지역의 중요성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역의 역량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 외의 인력영입에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때 외부자라 함은 부산출신의 출향민과 부산출신이 아닌 자, 해외인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뜻이다. 비엔날레의 특성에 맞는 외부자를 영입을 하면서 외부자 영입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종의 '스타마케팅'이나 '스타브랜드 효과'를 함께 가져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영입된 외부자가 부산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설령 거주지가 부산이 아닐지라도 부산시민의식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접촉하는 장소나 사람들에게 대외홍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지역의 '역사성'과 '시간성'의 연동 전략

부산의 역사성과 유리될 경우, 비엔날레는 매회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 부산의 특수성을 구체적인 범주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이론을 만들어나갈 때 비로소 부산비엔날레가 미술계에서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서구가 생산하는 담론의 뒷전에 서서 그들의 논쟁과 이론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부산비엔날레의 내적 흐름을 찾고 이를 중심으로 대외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비엔날레를 통해 제기되는 현재의 시론(試論)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 및 부산학, 한국학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문화예술 전문행정가의 양성 전략

세계의 어떤 비엔날레를 보더라도 단순히 현대미술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문화예술진흥'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 기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가 부산으로 몰려오게 함으로써 '부산작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부산비엔날레를 기대하는 외부작가나 전공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축제로서 여기게 하는 부대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의 행정적 체제와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인식적, 논리적 무장이 된 행정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행정가의 몫이며 행정가는 이미 예산, 행정절차, 집행, 평가, 분석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부산의 경우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문화예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의 자부심을 지지할 수 있는 내부적 프로그램을 가동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창조도시 부산'의 중요한 인적역량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력은 예술가나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현실 가능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경험의 축적,

이를 통해 예술가와 일반시민과의 가교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예술 전문행정가를 위한 양성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부산의 문화자원과 부산비엔날레가 창의적 관계망을 형성,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 및 미디어 활동 및 기관
▷ 청년문화, 소수민족 문화, 다른 '관심대상 커뮤니티'
▷ 자연환경 및 해양 유산
▷ 지역적 이미지와 대외적 이미지, 시간에 따른 도시 이미지의 변화
▷ 어린이, 소수민족, 노인층 등 다양한 집단이 이해하는 도시 이미지
▷ 공공 공간 및 열린 공간 등 자연환경과 건축 환경
▷ 레저, 문화, 음식, 음료, 오락시설 및 활동의 다양성과 품질
▷ 대학과 민간 연구소 등 지식혁신 및 과학 혁신을 위한 현지 여건과 기관
▷ 현지 특산품, 요리, 전통 디자인 등과 제조, 서비스 분야의 현지 상품과 기술의 결합

<참고문헌>

·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크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효형출판, 2005
· 『What's Up, Biennale?-2007년도 학술심포지엄』, 주최, 부산광역시,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주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학술위원회, 2007, pp. 156-169.
· <해외 문화도시 및 기관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국제교류협력 모델 개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연구소, 문화관광부, 2007
·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2006. 12
· 『경제학 - 돈의 경제학으로부터 인간의 경제학으로 』, 이케가미 준, 임상오 옮김, 문창사, 1995
·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경제학 최대의 변수는 '애정'이다』, 존 러스킨, 김석희 옮김, 느린걸음, 2007
· "네트워킹을 통한 창조도시 개발", 사사키 마사유키, <2008문화도시국제컨퍼런스 대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간 연대>, 문화관광부, 2008. 5. 16
· Mumford, Lewis, The city in history :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1, http://blog.naver.com/cityplanner7/40001789944 에서 재인용
·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Bianchini, F. and Parkinson, M.(ed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1993 ; 『the Creative City-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andry. C. Comedia, 2000; 『the Art of City Making』, Landry, C. EARTHSCAN, 2006
·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임상오 외, 해냄, 2007, <2008 문화도시국제컨퍼런스-대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간 연대>, 문화관광부, 2008. 5. 16 참조 재구성

· "Remaking European Cities : The Role of Cultural Policies" in Bianchini, F. and Parkinson, M. (eds.)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1993; 『In from the Margin -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Europe』, 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1997
·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ichard Florida, Basic Books, 2002